

## 민간 기록정보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etwork Platform for  
Information of Private Archives

김화경(Kim, Hwa Kyoung)\*\* · 조아라(Jo, A Ra)\*\*\*

1. 서론
2. 민간영역 네트워크 구축 운영사례
  - 1) 민간 아카이브 운영사례
  - 2)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사례
3. 이용자 요구사항 분석
  - 1) 분석 대상 및 방법
  - 2) 설문조사
  - 3) 인터뷰
  - 4) 자문회의
4. 민간 기록정보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전략 및 운영 방안
  - 1) 방향성 도출
  - 2) 비전 및 목표모델 수립
  - 3) 플랫폼 기능구성(안) 설계
  - 4) 이해관계자 역학관계 정립
5. 결론

\* 본 연구는 2022년 국가기록원 R&D 사업 '민간 아카이브 간 상호운용성 제고를 위한 협력형 아카이빙시스템 구축전략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된 연구임.

\*\* 한국문화정보기술(주) 수석연구원(kimhk@kait.co.kr)(제1저자).

\*\*\* 한국문화정보기술(주) 전임연구원(joarara@kait.co.kr)(제2저자).

■ 투고일: 2022년 12월 30일 ■ 최종심사일: 2023년 01월 02일 ■ 최종확정일: 2023년 01월 12일.

■ 기록학연구 75, 177-212, 2023, <https://doi.org/10.20923/kjas.2023.75.177>

## 〈초록〉

민간기록은 사회의 다양한 기억과 구성원들의 생활과 경험, 일상, 도덕과 가치관 등이 담긴 한 사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최근 다양성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으며 각기 다른 기반과 목적을 바탕으로 다수의 개인과 공동체가 등장하면서, 그들의 자발적인 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민간기록의 내용과 유형, 범주 역시 다양해졌다. 이러한 민간단체·공동체는 민간기록을 생산·보유하고 있는 잠재적인 대상이지만 대부분 기록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나 시스템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민간의 자발적인 의지와 활동만으로 기록관리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국가 기록관리 체계 내에서 민간의 고유한 특성과 방식을 존중하면서 각 조직의 수준에 적합한 기록관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소수의 공적 주체만으로 민간영역의 기록관리에 관한 모든 이슈를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민간영역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자생적으로 기록관리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협력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영역 간의 소통과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하고, 서로의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민간 기록정보 네트워크 플랫폼(이하 플랫폼)'을 제안하고자 한다. 민간영역 네트워크 구축사례 및 예상 이용자 요구사항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플랫폼의 비전과 목표모델을 수립하고, 플랫폼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주제어 : 민간단체, 공동체, 기록관리, 네트워크, 플랫폼**

## 〈Abstract〉

Private archives are an important indicator of understanding a society that contains various memories, the lives and experiences of members, daily lives, morality, and values. Recently, as diversity has emerged as

an important value in Korean society, a number of individuals and communities have been appeared based on different bases and purposes, and the contents, types, and categories of private archives produced from their voluntary activities have also diversified. These private organizations and communities are potential targets for producing and holding private archives, but most of them do not have the minimum infrastructure or system for management of archives, and the foundation for management of archives is weak only to be supported with the voluntary will and activities of the private sector.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a plan to support activities to manage archives suitable for each organization's level while respecting the unique characteristics and methods of the private sector within the national management system of archives. In addition, since it is difficult to solve all issues related to management of archives in the private sector with only a small number of process topics, a cooperativ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sustain activities to manage archives on its own through networks between private sectors.

In this study, we intend to propose a 'private archives information network platform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platform)' as a way to establish a communication and network foundation between private sectors and share resources with each other.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sis of cases of building network between private sectors and expected user requirements, we would like to establish a vision and target model of the platform and discuss ways to continuously operate the platform.

**Keywords : Private Organization, Community, Records Management, Network, Platform**

## 1. 서론

민간분야의 기록은 사회의 다양한 기억과 구성원들의 생활과 경험, 일상, 도덕과 가치관 등이 담긴 한 사회를 이해하는 지표이며 바람직한 시민사회의 성장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보이다. 민간단체·공동체는 이러한 민간기록을 생산·보유하고 있는 잠재적인 대상이자 민간영역의 주체로서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 기록을 생산하고 있으나, 기록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기반은 취약하다. 최근 공공영역에서는 민간기록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되면서 수집·공모사업, 교육, 전시 등에 관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대부분 단발성으로 종결되거나 극히 일부만이 지속되고 있다. 민간영역의 기록관리를 지원하는 범위는 기록물을 수집·보존하는 업무를 넘어 시민의 기록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새로운 기록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민간의 고유한 특성과 방식을 존중하면서 각 조직의 수준에 적합한 기록관리 활동을 지원하여 민간단체·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소수의 공적 주체가 민간기록 관리에 관한 모든 이슈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주체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록관리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민간영역 간에 상호 정보를 공유·지원하는 ‘민간 기록정보 네트워크 플랫폼(이하 플랫폼)<sup>1)</sup>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향후 플랫폼을 매개로 민간영역의 자생적인 기록 활동과 시민기록문화가 정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1) 2022년 국가기록원 R&D 사업의 ‘협력형 아카이빙시스템’은 민간영역 기록관리를 위한 정보 공유와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는 시스템이었으나, 민간기록을 공유하거나 시스템 및 유관 시스템 간의 연계를 목적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인식된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다. 이를 수렴하여 목표모델 시스템 명칭을 ‘민간 기록정보 네트워크 플랫폼’으로 변경하였다.

플랫폼 구축전략 방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민간영역의 기록관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주희(2018)는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협력적 문화거버넌스 연구를 통해 정부가 사업 초기에 비전을 제시하고, 이후에는 참여 주체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해나가는 협력적 관계를 촉진하는 역할을 구상하였다.

김익한(2017)은 시민사회 아카이브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관과 방법을 나누는 ‘아카이브 지원 및 연결망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가 재정적 지원과 함께 아카이브용 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장대환, 김익한(2018)은 사회 모든 계층의 아카이브 구축 참여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과 상호협력을 구상하고 집단기억의 사회적 구축 가능성을 제안하였으나, 지원과 협력의 구체적인 실현 방법에 대한 연구로 이어지진 않았다.

국가기록원(2021)은 정책연구를 통해 민간분야의 다양한 기록관리 활동과 배경, 환경조사를 진행하였으나 기록관리 활성화를 위한 진흥기구 설치 및 입법화 등 조직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중점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연창(2021)은 플랫폼의 개념을 아카이브에 적용하여 관계형 아카이브 플랫폼 시스템의 개념모형을 정립하고 기술적 환경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였으나, 기록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와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민간영역에 적용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민간영역의 기록화 연구와 활동 성과가 계속해서 축적되고 있지만 참여 주체 간의 네트워크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김익한(2018), 전주희(2018)의 경우 공공의 지원이 민간 협력체계의 전제가 된다는 구상은 본 연구와 동일하지만, 민간영역의 다양성을 포괄하고자 하는 플랫폼의 방향성과 상이한 측면

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간영역의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하고 정보 공유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 아카이브의 기록관리와 정보 공유 현황,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제반 요소들을 중심으로 조사·분석하였다.

먼저 민간영역의 기록관리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민간 아카이브 운영 주체에 따라 대표기관 운영, 단독기관 운영, 공동기관 운영으로 구분하여 현황분석을 진행하고, 각각의 개선사항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아카이브 영역 이외에 네트워크 체계를 원활하게 구축·운영하고 있는 선진사례를 선정하여 플랫폼 구축에 참조할 수 있는 벤치마킹 요소를 도출하였다. 이와 함께 민간 기록관리 활동의 지원 범위와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주요 예상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인터뷰, 자문회의를 통해 플랫폼에 대한 수요와 기능적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플랫폼의 구축 방향성, 비전 및 목표모델, 플랫폼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플랫폼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유형을 파악하여 플랫폼의 지속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 2. 민간영역 네트워크 구축 운영사례

### 1) 민간 아카이브 운영사례

본 장에서는 민간영역의 기록관리 활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민간 아카이브 운영사례를 조사하고, 개선사항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민간기록은 내용의 범주 및 유형, 생산 주체의 다양성으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민간 아카이브의 운영형태와 주제영역을 특정하여 대상에 대한 조사·분석을 진행하였다. 운영 형태에 따

라 대표기관 운영, 단독기관 운영, 공동기관 운영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주제영역은 시민운동, 교육, 지역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대상을 선정하였다.

대표기관이 주도적으로 아카이브를 운영하는 사례로는 ‘YWCA 아카이브<sup>2)</sup>’를 살펴보았다. YWCA 아카이브는 YWCA가 시민운동 과정에서 생산·보관해온 기록과 청년·여성·기독교 운동의 유산을 공유하기 위해 구축된 아카이브로 기독교 여성시민단체인 한국YWCA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주축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국 53개 회원 YWCA의 대표기관인 연합회가 기록을 등록·관리하며, 회원 YWCA는 기록물을 제공하나 아카이브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다양한 출처로부터 기록물을 수집하여 디지털화 작업 후 아카이브를 통해 기록과 기술정보, 특정 주제·이슈·사건을 중심으로 관련 기록을 재구성하여 통합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열람 조건에 제한이 없는 자료에 한하여 출처와 글쓴이를 밝힌 후 활용이 가능하며, 아카이브 내에 이용자가 자료를 기증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여 이용자 참여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단체 내부적으로 실무를 위해 기록을 활용하고 있으나, 외부 이용자의 기록물 활용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

단일기관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아카이브 사례로는 ‘동물권행동 카라 아카이브(이하 “카라아카이브”<sup>3)</sup>’를 살펴보았다. 카라아카이브는 비영리시민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Korea Animal Rights Advocates)’가 동물권 관련 자료를 정리·보존하고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유하기 위해 구축된 아카이브로 시민들의 기록물 활용을 지원하고, 관련 조언과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YWCA 아카이브와 같이 자료 기증 기능을 구현하여 이용자의 참여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생산된 기록물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내부적으로 실무를 위해 활용하는 측면이 높았다. 주요 특

2) YWCA 아카이브, <https://ywca-archive.or.kr>

3) 동물권행동 카라아카이브, <https://archive.ekara.org>

징으로는 ‘개농장 감시 참여하기’ 메뉴를 통해 시민·단체·유관기관 등 다양한 이용자로부터 정보를 축적하고, 축적된 정보가 새로운 활동으로 이어지며 아카이브를 기반으로 단체와 기록 활동의 활성화를 제공하는 선순환적인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다수의 기관이 공동으로 아카이브를 운영하는 사례로는 ‘자원봉사 아카이브<sup>4)</sup>’를 살펴보았다. 자원봉사 아카이브는 재단법인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를 주축으로 전국 246개의 자원봉사센터, 15개의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자원봉사 기록공동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자원봉사 활동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동 운영기관은 각자의 계정을 부여받아 기록물을 아카이브에 업로드하고, 공동으로 활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전시를 구성할 수 있다. 아카이브는 자료 공유 협약을 체결하여 자원봉사 기록의 수집 및 공유를 강화하고, 연구 및 자원봉사 사례, 업무매뉴얼, 교육 영상, 각종 서식 등을 공유하며 기록관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앞선 두 사례와 마찬가지로 일반 이용자보다는 자원봉사 업무 참조를 목적으로 아카이브를 활용하는 측면이 높았으며, 기록의 공유와 활용을 위해 필요한 문서화 된 지침과 아카이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가이드, 아카이브시스템 매뉴얼을 별도로 제공한다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 민간 아카이브의 운영사례 분석을 통해 기록 이용 및 활용 현황을 살펴보았다. 사례분석 결과 각 기관의 성격, 목표, 활동 방식에 따라 아카이브의 운영 형태가 다양하나 모두 다양한 출처로부터 기록물을 수집하여 디지털화 작업을 통해 통합 서비스로 제공한다는 공통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온라인으로 누구나 기록을 기증하고 기술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여 다수의 이용자가 기록관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반면 아카이브시

---

4) 자원봉사 아카이브, <https://archives.v1365.or.kr>



시스템의 운영 주체에 의해 기록 서비스가 단방향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특정 영역의 기록관리 활동(수집·등록)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기록관리 업무 및 아카이브 운영에 대한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기 어려운 구조를 취하고 있었다. 이에 아카이브에 대한 다양한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록관리 과정과 활동의 참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민간기록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소통 장치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아카이브 및 기록 활용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 외부 이용자에 대한 활용 현황은 파악하지 않고 있었으며, 업무 참조를 목적으로 내부적인 활용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기관 자체 아카이브 뿐만 아니라 기록을 매개로 하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면 기록의 활용도를 높이고, 유사 분야의 주체들이 활동과 업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소규모 민간단체의 기록관리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침을 제작·배포하거나 실질적인 조언과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통합창구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기록관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민간단체는 단체 활동과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적·재정적 자원이 부족하지만 이를 모두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구책 중의 하나로 민간단체·공동체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조직의 목표, 규모, 활동 방식이 유사한 단체 간의 소통을 통해 서로의 활동 경험을 공유하고, 자원을 활용한다면 부족한 인프라 환경 속에서 자생적으로 기록관리 활동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2)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사례

민간 기록관리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온라인 정보 소통 플랫폼의 구축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사례를 대상으로 참여 주체 간의 상호작용 및 활동 방식을 조사·분석하여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대상은 아카이브 영역 이외에도 민간영역에서 네트워크 체계를 원활하게 구축·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을 선정하였다.

먼저 서울시NPO지원센터(이하 “서울시NPO”)<sup>5)</sup>는 서울 시민의 공익활동 경험과 자원을 공유하여 시민 공익활동 사업 및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중간조직이다. NPO 간의 소통과 의견 공유를 위한 박람회, 워크숍과 같은 각종 오프라인 행사와 플랫폼을 통해 민간영역에서 활동 중인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온·오프라인 공간을 통해 활동가 및 NPO 단체들의 활동, 우수사례, 관련 사업 등의 정보를 모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직접 자료를 등록하거나 의견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능을 구현하여 경험, 지식, 노하우, 의견, 참조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관 및 단체와의 파트너십을 유지하여 폭넓은 교육을 지원하고,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활동가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이하 “빠띠”)<sup>6)</sup>는 커뮤니티 서비스와 미디어를 구축하는 개발자, 디자이너, 마을 활동가, 비영리단체 및 데이터 운동 활동가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설립된 협동조합이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으며, 새로운 소통과 협력의 방식을 확산하기 위해 툴킷과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다.

5) 서울시NPO지원센터, <https://www.snpo.kr>

6)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https://coop.parti.xyz/front/coc>

일반 시민, 조직, 각 분야의 전문가 간의 협업과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커뮤니티 플랫폼을 개발하여(요금제 운영) 참여 주체 간의 소통과 협력 활동을 지원하며, 플랫폼 활용을 위한 가이드와 교육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온·오프라인을 연계하여 특정 이슈와 현안에 대한 의견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능과 누구나 편집 가능한 공동작업 기능을 구현하여 구성원이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들의 협업을 지원하고 있다.

다음으로 영국 CAHG(Community Archives and Heritage Group, 이하 “CAHG”)는 영국과 아일랜드 커뮤니티 아카이브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과 디지털 기술 활용 및 지원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웹사이트를 통해 워크숍 및 컨퍼런스 프로그램(온·오프라인), 아카이브 관리 및 활동을 위한 안내와 조언을 제공하며, 연례 시상식을 통해 혁신과 모범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소속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정보를 지역별, 주제별, 활동별 구분하여 디렉토리로 제공하고 있으며, 디렉토리에 포함되지 않은 공동체의 경우 직접 사이트 내에서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기록을 직접 공유하는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지만 아카이브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형태로 기록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아카이브의 목표 설정, 공간 마련, 이용자 유치 등 아카이브 운영 전반에 대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아카이브가 자체적으로 기록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금 마련을 위한 각종 제도에 대한 정보 및 방법, 사례 공유뿐만 아니라 동기 부여를 위한 포럼, 세미나, 시상식 등 온·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NTEN(The Nonprofit Technology Enterprise Network, 이하 “NTEN”)<sup>8)</sup>은 50,000명 이상의 커뮤니티 회원에게 교육과정, 비영리

---

7) 영국 CAHG, <https://www.communityarchives.org.uk>

8) 미국 NTEN, <https://www.nten.org>

기술 회의, 온라인 및 대면 토론 공간을 포함한 역량 구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전문가 커뮤니티로 비영리단체가 기술을 전략적으로 평등하게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된다. NTEN은 비영리 기술에 관한 질의와 조언을 제공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을 통해 소통 및 자료를 공유하며, 발생하는 이슈에 대한 자체적인 토론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비영리단체의 기술 활용을 지원하고, 장학금 제도를 통해 비영리단체의 비용적 부담을 감소해준다. 이와 함께 매년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최신동향을 소개하고 단체 간의 기술 활용과 활동, 사례를 공유하여 단체 간의 교류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상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사례를 통해 다양한 참여 주체들의 상호 작용과 활동 방식을 살펴보았다. 공통적으로 민간영역 간의 협력과 협업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플랫폼을 활용하여 특정 사안의 해결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거나,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자리를 통해 네트워크 구축 기반을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토론 및 이슈 공유를 위해 정기적으로 연례행사를 개최하여 구성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었다.

민간 아카이브의 운영사례,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사례 분석결과를 종합한 결과 플랫폼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제반 요소는 다음과 같다. 먼저 민간영역 간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유사 활동 및 목적을 가진 단체·공동체가 서로의 경험, 노하우, 의견을 나누고 기록관리 현안에 관한 해결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등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민간의 기록관리 활동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구성원이 기록을 자원으로 인식하고, 내부적으로 아카이빙 문화가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새롭게 기록관리를 시작하는 민간단체·공동체에서도 기록관리 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플랫폼에서 기초 교육 프로그램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거나 기록관리 경험이 있는 조직은 기록관리 역량을 지속해서 강화할 수 있도록 심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기록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구축된 민간영역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속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기적으로 연례행사를 개최하거나, 특정 사안의 해결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주체가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기회를 제공하여 다중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내 정보를 재구성하여 새로운 정보가 생산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플랫폼 내에서 고정된 정보가 아니라, 공유되는 정보를 큐레이션하여 이용자에 의해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또 다른 정보가 창출되고, 새롭게 창출되는 정보가 다시 공유·활용되는 선순환적인 정보 유통을 통해 플랫폼의 활성화 기반과 활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 3. 이용자 요구사항 분석

#### 1) 분석 대상 및 방법

본 장에서는 플랫폼 구축에 대한 수요를 확인하고 민간 기록관리 활동의 지원 범위와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주요 이용자로 예상되는 민간단체·공동체를 대상으로 요구사항을 청취하였다. 분석 대상은 2022년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영리 혹은 비영리(NPO)조직과 민간에서

활동 중인 민간단체·공동체 중 아카이빙 활동을 진행하거나 기록관리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파악된 대상 179개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022년 6월 20일부터 7월 8일까지 약 3주 동안 메일 또는 구글폼(Google Form)을 통해 설문지<sup>9)</sup>를 배포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진행 결과 총 119개의 민간단체 중 49개(약 41.1%)에서 설문에 응답하였다. 1개의 기관에서 2인 이상이 설문에 참여한 경우, 단답식 답변을 2개 이상 선택한 경우 모두 분석 대상에 포함하여 통계를 산출하였으며, 잘못 표기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설문조사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플랫폼의 기능적 요구사항 및 기록관리 활동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22년 7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유형별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추가적으로 국가기록원이 개최하는 민간기록 진흥을 위한 전문가 그룹별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민간 기록관리 활동 현황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플랫폼 구축의 방향성을 수립하는데 참조하였다.

## 2) 설문조사

설문조사의 주요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단체·공동체의 현황에 대한 응답 결과 주요 활동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부족(49.1%), 인프라 부족(22.6%)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응답하였으며, 이는 대부분 적은 예산과 소규모로 운영되는 민간단체·공동체의 여건상 발생하는 내부적인 어려움이었다. 플랫폼을 통해 단체·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비슷한 고민과 어려움을 다른 단체·공동체와의 교류·소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9) 자세한 내용은 '부록 1. 설문조사 질의서' 참조

둘째, 기록관리 업무에 대한 민간단체·공동체의 인식조사 결과 중요한 업무(43.3%), 매우 중요한 업무(43.4%)라고 응답하였으며, 기록관리 업무를 통해 조직의 역사 및 성과 정리(43.4%), 정체성 및 공동체 의식 제고(26.4%)를 기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록관리 업무수행 시 예상되는 애로사항으로는 조직 및 인력 부족(39.6%), 업무수행을 위한 재정 부족(28.3%)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를 위한 지원 방안으로 기록관리 업무 지원 방안과 관련하여, 기록의 체계적인 관리 프로세스 및 전문인력(38.6%), 업무수행을 위한 재정 지원(33.0%)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민간단체·공동체에서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조직의 역사와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으나, 인력 및 재정 부족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향후 플랫폼을 활용하여 민간단체·공동체에서 기록관리 업무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플랫폼에서 기록관리 업무메뉴얼 및 지침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 기관소개를 통한 후원자 확대, 재정확보를 위한 아이디어 교류, 기록관리 자원봉사 모집 등을 진행한다면 조금이라도 이러한 부족함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플랫폼에 대한 민간단체·공동체의 인식조사 결과 전체의 79%가 플랫폼 구축 시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하였으며, 활용할 의향이 없다고 대답한 경우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력이 부족(45%)하거나, 기록관리 관련 단발성 사업으로 플랫폼 이용을 지속하기 어려움(27%)을 이유로 밝혔다. 플랫폼을 통해 공유 및 제공하고 싶은 정보로는 활동 홍보자료(26.5%), 해당 분야 교육 및 연구 자료(26.5%), 단체 역사 및 성과 관련 자료(21.4%) 순으로 응답이 높았으며, 플랫폼 필요기능으로는 기록 검색 및 열람 기능(64.7%), 이용자 간 커뮤니티 기능(11.8%)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플랫폼은 단체·공동체의 활동과 업무를 지원하고, 인력 부족 및 업무 과중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단체·공동체가 각자의 활동과 사업을 정리·홍보하고 지속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플랫폼 초기 단계에는 구축이 용이한 커뮤니티 기능을 통해 이용자 간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며, 향후 플랫폼 활성화 시 단체·공동체가 소장하고 있는 기록의 검색 및 열람을 지원하는 기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상으로 설문조사의 주요 응답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적은 예산과 소규모로 운영되는 민간단체의 여건상 대부분 비슷한 고민과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사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단체의 정보 및 서로의 경험이나 지식 등에 대한 정보 공유 요구에 대한 수요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고민과 어려움이 한곳에 모이고, 외부와의 정보 공유 및 교류·소통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단체의 업무 및 활동 관련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단체 간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이 필요하며, 플랫폼 구축이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각 단체·공동체의 기록관리 여건에 따라 플랫폼 활용의 목적과 기대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체가 참여·활동하는 단체의 경우 원활한 소통과 교류의 중요성으로 인해 플랫폼을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은 것을 확인하였다. 단체가 온라인 웹페이지를 운영하지 않은 경우, 단체를 소개하고 활동과 업무성적을 공유하는 창구로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 의사를 표현하였다. 반면, 사회적으로 민감한 내용 및 주제로 활동하거나 관련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단체는 오히려 플랫폼을 통한 정보의 대외 공유 및 공개 서비스에 거부감을 보이는 등 플랫폼 이용에 대한 낮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플랫폼에서 모든 단체·공동체를 포괄할 수 없으나 각각의 활동과 특성을 고려하여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3) 인터뷰

설문조사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플랫폼의 기능적 요구사항과 특징을 청취하기 위해 각 단체에서 기록관리 활동 및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층적인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대상은 활동 영역, 온라인 홈페이지 및 아카이브시스템 구축 여부, 플랫폼 활용 의향 여부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4곳의 대상을 선정하여 질의서<sup>10)</sup>를 바탕으로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표 1〉 유형별 인터뷰 대상

구분	활동 영역	홈페이지 운영	아카이브시스템 구축
1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 (내부 활용)	X
2	한베평화재단	○ (대외 서비스)	X
3	맨발동무도서관 화명기록관	X	X
4	우토로 마을 아카이브	○	○

유형별 인터뷰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단체의 활동 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의 기록이 생산·축적되고 있지만, 직면한 현안 과제를 우선하여 처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록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록관리 업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아카이브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기관의 경우 기록관리 활동 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기록관리 관련 각종 서식 및 매뉴얼 공유, 중복자료 관리 방법 등의 요구사항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유사한 활동이나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간에 기록관리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여 단체 정보, 업무 참조자료, 기

10) 자세한 내용은 '부록 2. 인터뷰 질의서' 참조

록관리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기록관리 관련 각종 서식, 아카이브 운영 노하우 등의 공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타 기관의 사례나 기록관리 매뉴얼 참고 시 단체의 상황에 맞지 않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단체의 기록관리 업무 의지에 비해 실제 활용 결과는 미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각 단체의 규모와 활동에 적합한 기록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는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기록관리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공유하여 아카이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플랫폼 기능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소장 중이거나 유사한 활동 및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 다양한 서비스 기능(다국어 서비스, 인력 모집, 기록물 등록, 자료분류 및 연계 기능, 국가지정기록물 신청 등)에 대한 요구사항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이용자의 활용과 접근성을 증대하기 위해 향후 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에 정도에 따라 보다 다양한 단체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점차 플랫폼 기능을 확장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4) 자문회의

추가적으로 플랫폼 구축의 방향성을 도출하는데 참조하기 위해 다양한 그룹의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였다. 먼저 현장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지역 공동체 아카이빙 활동은 전문가·활동가별 지역사 구술 채록, 민간기록 수집, 사진 기록화 등으로 진행되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업할 기회가 필요하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다. 또한 민간기록 수집·관리체계와 분야별 민간 기록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제공, 단체의 활동 정보와 기록관리 관련 이슈를 공유할 수 있는 정기적인 포럼·세미나 개최, 네트워크 구축 공간에 대한 수요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영리민간단체 자문회의 결과 잦은 인력 변동과 기록관리 체계의 부재로 기록관리 업무에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 및 문화 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를 위해 소규모 아카이브에 적합한 가이드 제공, 정보 공유를 위한 정기적인 온·오프라인의 장 마련, 아카이빙 교육 및 행사 등을 통한 지원 방안이 제시되었다.

기초자치단체 기록관의 경우 민간기록 수집 사업을 활발히 진행 중으로 공공기록과 민간기록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및 타 부서·유관기관 간의 지속적인 아카이브 업무 협력, 민간영역과의 협력과 정보 공유를 위한 제도적 근거에 대한 필요성과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으로 이용자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먼저 단체 정보와 민간 기록관리 활동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민간단체에서 구성원이 기록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록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협력하는 아카이브 문화가 형성되어야 하며, 기록관리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단체 홍보 및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 등으로 아카이브에 대한 인식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플랫폼을 통해 소규모로 운영되는 민간영역의 기록관리 규모와 상황을 고려하여 기록관리에 참고하기 적합한 수준별·규모별·목적별 다양한 가이드라인이 공유되어야 한다. 민간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업무담당자의 부재 또는 교체 시에도 연속성 있는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록관리를 수행하는 데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다양한 이슈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정기적인 포럼·세미나·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

한 지원이 필요하다.

향후 구축될 플랫폼은 이를 감안하여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야 하며, 민간에서 기록관리로 인한 업무 과중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한 부담을 감소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야 한다. 시스템 및 기록관리 전문가가 아닌 단체 구성원 누구나 플랫폼을 활용하여 쉽게 정보를 나누고,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아도 쉽게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 4. 민간 기록정보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전략 및 운영 방안

##### 1) 방향성 도출

민간영역 네트워크 환경분석, 이용자 요구사항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플랫폼의 구축 목표 및 방향, 플랫폼의 대상, 구축 형태, 서비스 제공방식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소수의 공공기관이 광범위한 민간영역의 기록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획일적으로 통합·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민간기록 자체를 공유하거나 민간 아카이브 간 기록을 연계하는 것이 아닌 민간영역의 다양한 주체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플랫폼 구축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둘째, 플랫폼의 대상은 본 연구에서 민간단체·공동체로 설정되 참여와 이용은 민간영역 전체를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민간영역 주도의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플랫폼을 지속해서 운영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 민간영역에서 활동하는 모든 주체가 이용자이지만 기록관리 활동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공동체 이익과 정체성을 위한 기록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주체를 민간 기록관리 지원을 위한 우

선대상으로 하였다.

셋째, 플랫폼의 구축 형태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는 민간영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온라인 방식을 고려하였다. 이를 통해 시간·공간의 물리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이용자의 접근 용이성을 높이고, 해당 분야 및 주제와 유사하게 활동 중인 주체 간에 다각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접근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플랫폼은 무료 서비스로 제공한다. 특정 주제나 지역을 중심으로 구축·운영되는 플랫폼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추가 기능·사용 및 정보 획득을 위한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자원이 적은 민간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기록관리 업무 및 활동을 위한 별도의 인력과 예산이 적은 민간에 플랫폼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체적으로 활용가능한 정보 습득과 활동 및 외연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여 기록관리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민간 참여에 따른 플랫폼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운영이 민간 기록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플랫폼 운영관리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민간에서 의지만으로는 기록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기록원이 플랫폼의 구축과 운영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이후 점차 민간이 주도하는 운영체제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플랫폼 구축 준비 단계에서부터 초기 및 안정화 단계에까지 이용자가 플랫폼에 지속해서 유입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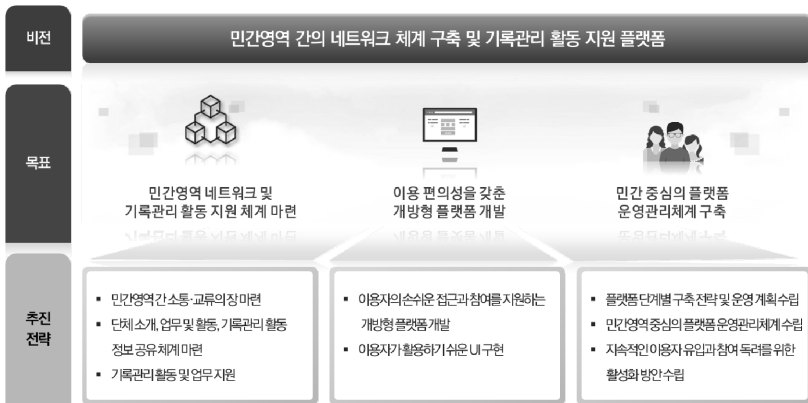
## 2) 비전 및 목표모델 수립

도출된 방향성을 토대로 플랫폼의 비전을 “민간영역 간의 정보 공유·소통·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체계 구축 및 기록관리 활동 지원 플

랫폼”으로 수립하였다. 플랫폼은 민간 기록관리와 관련한 다양한 유형의 정보 공유 및 활용을 목표로 개방형 플랫폼을 지향하며, 이용자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열린 공간인 것이다.

또한, 플랫폼은 고정적인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영역의 자생적인 기록관리 활동 기반을 마련하는데 좀 더 융통적이고 능동적인 구조로 확장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A’라는 특정 사건·사고를 주제로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공동체들은 플랫폼에서 서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A’와 관련된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 노하우를 공유하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해결 및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다양한 유형의 정보들이 플랫폼에 공유되고 축적되면 다른 이용자는 플랫폼에 축적된 정보를 자신의 환경에 맞게 적용·활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며, 민간영역 간 네트워크 체계를 확장하고, 지속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립된 비전과 목표별 세부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플랫폼의 비전 및 목표모델, 추진전략 수립



도출된 목표모델 플랫폼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플랫폼의 구축 단계를 운영 주체와 구축 범위에 따라 크게 준비 단계, 초기 단계, 안정화 단계로 구분하여 순차적인 단계별 구축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준비 단계는 플랫폼이 구축되기 전 민간단체·공동체 간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이다. 국가기록원이 플랫폼의 운영 주체가 되어 민간영역 간에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기록 활동을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국가기록원은 2022년 민간단체·공동체를 방문하여 기록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학계·현장·지방자치단체 기록관 등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민간 아카이브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자문단을 운영 중이다. 추후 시범적으로 워크숍·간담회 등 오프라인 행사를 기획하여 운영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민간영역에서 활동 중인 단체·공동체의 현황을 파악하며 플랫폼의 참여 대상을 탐색하고,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네트워크 기반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초기 단계는 민간영역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초점으로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구현하여 플랫폼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의 운영 주체 역시 국가기록원으로, 준비 단계에서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민간영역 간 네트워크 기반을 온라인으로 옮겨와 플랫폼의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관리 역할을 수행한다. 플랫폼 제공 및 인프라 마련, 운영관리를 통한 교육 및 협력 기회,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을 담당한다.

안정화 단계에서는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민간영역 중심의 운영관리체계가 구축되는 단계로, 운영 주체는 민간 전담기관으로 전환된다. 영국 TNA의 경우 현재까지 무역 및 산업, 사회적 소수자 공동체, 전쟁, 운송, 농업, 사회사, 스포츠, 농촌, 흑인, 역사적 건축물, 고고학, 문학, 성소수자, 종교 등의 주제에 걸쳐 332개의 아카이브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국가기록원, 2021). 이러한

수치를 참조하여 향후 플랫폼 이용자 및 활용 추이에 따른 정량적 기준 (주제별, 단체별)을 수립하여 운영관리체계의 전환 시기를 판단해야 한다. 민간 전담기관은 국가기록원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와의 파트너십을 유지하여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민간영역의 기록관리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가야 한다.

### 3) 플랫폼 기능구성(안) 설계

이러한 플랫폼의 운영 방안을 바탕으로 플랫폼의 기능구성을 단계별로 설계하였다. 준비 단계는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진행되므로 플랫폼 기능구성 설계에서는 제외하고, 플랫폼 기능이 실질적으로 구현되어 운영되는 초기 단계와 안정화 단계를 중심으로 하였다.

플랫폼의 단계별 구축전략을 반영한 목표모델 개념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 2〉 플랫폼의 목표모델 개념도



초기 단계에는 정보 등록 및 검색기능을 구현하여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열람 및 검색 서비스를 제



공하는 등의 플랫폼 운영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능을 중심으로 설계하였다.

안정화 단계에서는 보다 자율적으로 운영·관리되는 플랫폼 내에서 민간영역 간의 자유로운 소통을 지원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능, 이용자 참여 및 정보 생산 기능, 콘텐츠 생산 및 활용 기능 등의 기능을 중점적으로 설계하였다.

플랫폼의 기능은 관리 기능과 서비스 기능으로 구분하여 총 7개의 대기능, 25개의 중기능으로 구성하였다. 관리기능은 플랫폼의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능으로 관리자에게만 허용된 홈페이지 관리, 통계 관리 기능으로 구성하였다.

〈표 2〉 플랫폼 기능요소 도출

관리 기능	내용
홈페이지 관리	- 홈페이지 메뉴, 메인화면, 이용자, 요청/문의 관리 등 플랫폼의 운영·관리 기능
통계 관리	- 이용자 통계, 태그별 통계, 콘텐츠 통계 기능으로 구성

서비스 기능은 로그인 여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권한이 상이하하며, 소개, 커뮤니티, 포트폴리오, 검색, 마이페이지 기능으로 구성되어 이용자 간의 정보 공유 및 소통을 지원한다.

〈표 3〉 플랫폼 서비스 기능구성

서비스 기능	내용
소개 기능	- 홈페이지 소개, 공지사항, 요청/문의 기능
포트폴리오 기능	- 단체자료, 활동·홍보자료, 교육·연구자료 등록·관리 기능
검색 기능	- 통합검색, 단체검색, 태그검색 기능
커뮤니티 기능	- 행사, 공동작업, Q&A 등 이용자 협업 지원 기능
마이페이지 기능 (로그인 서비스)	- 회원가입, 로그인, 콘텐츠 등록, 즐겨찾기 기능

본 연구의 플랫폼 목표모델은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 기능을 중심으로 수립하여 기록정보의 연계를 포괄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향후에는 시스템 연계 또는 플랫폼에서 기록관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능을 제공하여 민간단체·공동체에서 보유한 기록의 통합검색, 열람 등 기록 정보 서비스를 포함한 목표모델 확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4) 이해관계자 역학관계 정립

플랫폼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플랫폼과 직간접적으로 연관 있는 이해관계자의 유형을 파악하고, 이해관계자 간의 명확한 관계를 설정하였다. 플랫폼 구축 전 주체 간 정립된 역학관계 속에서 예상되는 협조 및 지원, 기대사항을 파악하여 플랫폼의 구축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플랫폼의 주요 이해관계자 유형은 민간단체·공동체, 국가기록원, 민간 전담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유관기관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민간단체·공동체는 플랫폼을 통해 민간 기록관리를 위한 지원을 받는 대상이자 민간단체·공동체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자체적인 기록관리 활동 능력을 증진하며 플랫폼을 활성화하는 주체이다. 민간단체·공동체 정보, 활동 정보, 기록관리를 위한 지침, 기록관리 업무수행 경험과 노하우, 교육 자료, 홍보물, 자체 콘텐츠 등 민간에서 활동하는 타 단체들과 정보·의견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협력 활동을 전개하면서, 민간의 기록문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다. 여러 민간단체·공동체의 활동가들이 플랫폼을 구심점으로 민간 기록정보 네트워크 ‘커뮤니티’ 구성원으로 기록 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을 해결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한다면 플랫폼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기록원은 플랫폼 시스템 구축 및 초기 단계의 운영 주체로, 플랫폼

품의 초기 정착과 안정화를 지원한다. 준비 단계에서는 민간단체·공동체의 의견 청취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플랫폼 참여를 위한 1차 우선 대상을 접촉하여 플랫폼에 유입되도록 유도한다. 플랫폼에서 공유될 민간 관련 기록관리·교육 프로그램 정보,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민간에서의 기록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기록관리 업무 관련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초기 단계에서 플랫폼을 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안정화 단계 진입 기반을 마련하여 플랫폼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지원한다.

민간 전담기관은 민간에서의 적극적인 참여로 플랫폼이 활성화된 안정화 단계의 플랫폼 관리·운영 주체로, 민간 기록관리 분야 성장 및 원활한 기록 활동을 지원한다. 기록관리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민간 기록관리 지원을 위한 연례행사 및 세미나, 포럼 등의 행사를 주최하여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기록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조언을 제공하거나 관련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민간에서의 다양한 주제·영역에서 기록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추진하거나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민간에서 기록 활동을 하는 데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기록관리와 관련한 각종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민간의 기록관리 활동, 관할 행정 구역 내 기록 활동가를 비롯한 민간의 기록관리 활동의 동기를 부여하고 수행을 지원할 수 있다.

유관기관은 문화원·박물관·도서관과 같이 민간기록을 수집·관리하거나 민간영역에서 활동 중인 단체·공동체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으로, 민간영역에서 활동하는 주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민간단체·공동체 현황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선행사업을 진행한 기관의 경우 선행사업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플랫폼 활성화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민간영역에서의 기록 활

동 지원을 위한 공동의 협력 활동 추진 가능하며, 유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플랫폼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유관기관 또한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여 업무 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적극적인 상호 교류로 플랫폼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기록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5. 결론

최근 공공·민간영역에서 특정 주제 및 지역을 중심으로 커뮤니티 플랫폼이 구축·운영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공동체의 현황과 기록관리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거나 공유하는 사례는 부재하며, 광범위하고 다양한 민간영역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플랫폼을 매개로 민간영역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를 원동력으로 자생적인 기록관리 활동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민간 기록정보 네트워크 플랫폼’을 그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플랫폼은 구축도 중요하나,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먼저 각 단체의 현황과 여건에 따른 기록관리 교육 및 컨설팅 기회, 기록관리 목적·현황 등을 고려한 프로그램 제공, 기록관리를 위한 각종 서식 및 가이드 등을 공유하여 각자의 수준과 현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시공간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지속적으로 네트워크 체계를 지원하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교육 이수 인증서 발급, 우수사례 시상식 등의 보상 제도를 통해 플랫폼 참여를 독려하고, 기록관리 활동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고민해 볼 수 있다. 향후 플랫폼이 안정화되는 단계에서는 네트워크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공동의 관심사를 가진 단체 및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자발적인 협의체를 구성·운영을 고려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을 활용하여 타 단체의 성과 및 모범사례 공유한다면 단체 간의 교류와 상호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또 다른 동기 부여와 기록관리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선순환적인 구조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플랫폼을 통해 민간영역의 다양한 주체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경험이나 지식, 노하우를 공유하며 네트워크 체계의 구축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이경래(2015).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의 거버넌스 모델 연구. 기록학연구 45, 76-80.
- 배양희·김유승(2017). 민간디지털 아카이브 수집정책 연구. 기록학연구 53, 121-123.
- 엄소영·김혜영·명현·김용(2017). 민간·공동체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수집정책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1(2), 180-183.
- 김익한(2018). 왜 다시 기록관리 혁신인가? 소통, 기술, 협치를 향해. 기록학연구 55, 169-175.
- 이영남(2018). '마을아르페'(Community Archpe) 시론: 마을 차원의 "책, 기록, 역사 그리고 치유와 창업의 커뮤니티"를 위한 제안. 기록학연구 18, 249-250.
- 장대환, 김익한(2018). 기억, 기록, 아카이브 정의(正義). 기록학연구 59, 279-295.
- 전주희 (2018). 협력적 문화거버넌스에서 문화예술단체의 참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 일반대학원, 공연예술협동과정, 47-54.
- 손동유(2019). 민간분야 공동체 아카이빙의 성과와 과제. 실천민속학연구 34, 39-63.
- 국가기록원(2021). 민간분야 기록관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완료보고서, 103-130.
- 국가기록원(2021). 민간분야 기록관리 관련 현황 및 시사점: 기록관리이슈페이퍼, vol.30, 33-39.

이연창(2021). 관계형 아카이브 환경모형. 기록학연구 69, 83-89.

〈참고 사이트〉

CAHG(Community Archives and Heritage Group), <https://www.communityarchives.org.uk/>, 2022.07.13 확인.

NTEN(The Nonprofit Technology Enterprise Network), <https://www.nten.org/>, 2022.07.13 확인.

YWCA 아카이브, [ywca-archive.or.kr](http://ywca-archive.or.kr)

동물권행동 카라아카이브, <https://archive.ekara.org>, 2022.07.13 확인.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https://coop.parti.xyz/front/coc>, 2022.07.13 확인.

서울시NPO지원센터, <https://www.snpo.kr/>, 2022.07.13 확인.

자원봉사 아카이브, <https://archives.v1365.or.kr/>, 2022.07.13 확인.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 [https://www.mois.go.kr/fi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58&nttId=96768](https://www.mois.go.kr/fi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58&nttId=96768), 2022.12.26. 확인.

## [부록 1] 설문조사 질의서

Q1. 플랫폼은 다양한 민간분야에서 활동 중인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현황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민간단체의 활동 지원하고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플랫폼이 구축된다면 귀하의 단체 활동과 업무를 수행하는데 활용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 ① 예
- ② 아니오

Q2. 플랫폼을 통해 공유하거나 제공하고 싶은 정보는 무엇인가요?

(\*복수 응답가능 2개)

- ① 단체 역사 및 성과 관련 자료
- ② 업무매뉴얼 및 지침
- ③ 단체 및 활동 홍보 자료
- ④ 해당 분야 교육 및 연구 자료
- ⑤ 유관 민간단체 관련 자료
- ⑥ 법률처리 관련 자료
- ⑦ 단체 운영 시 애로사항
- ⑧ 기타

Q3. 플랫폼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 ① 민간단체의 역사/활동/성과 홍보 서비스
- ② 민간단체 및 개인 간 교류·소통 서비스
- ③ 유관기관의 기록물 열람/검색/콘텐츠 통합서비스
- ④ 민간단체 활동 및 업무 이해를 위한 홍보·교육 서비스
- ⑤ 기타

Q4. 플랫폼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능은 무엇인가요?

- ① 게시물 등록 기능
- ② 기록 검색 및 열람 기능
- ③ 기록 연계 기능
- ④ 이용자 간 커뮤니티 기능
- ⑤ 투표 기능
- ⑥ 의제 설정 기능
- ⑦ 콘텐츠 제작 기능
- ⑧ 기타

Q5. 플랫폼이 귀하의 단체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시나요?

(\*복수 응답가능 2개)

- ① 단체 활동 성과 및 역사 공유
- ② 업무 및 활동 관련 자료 및 정보 공유
- ③ 민간단체 간의 네트워크 체계 구축
- ④ 이해관계자 의견 공유
- ⑤ 일반 국민 및 이용자 접촉 매개체
- ⑥ 기타

Q6. 플랫폼에 바라는 점, 의견이 있으신가요?

(예 : 플랫폼에서 서비스되었으면 하는 기능 및 콘텐츠, 민간단체 및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 유발 방안, 네트워킹 관련된 벤치마킹 대상 등)

Q7. 귀하의 단체 활동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 ① 인지도 및 정체성 부족
- ②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 부족
- ③ 인력 변동 시 인수인계 어려움
- ④ 주요 활동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부족
- ⑤ 단체 운영·관리를 위한 인프라 부족



- ⑥ 외부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연대부족
- ⑦ 기타

Q8. 위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복수 응답가능 2개)

- ① 단체 및 활동 홍보를 위한 캠페인 활동
- ②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③ 인프라 지원
- ④ 업무 수행을 위한 재정 지원
- ⑤ 유관단체와의 연대를 위한 공간 지원
- ⑥ 기타

Q9. 귀하의 단체 및 소속 개인들의 기록관리 업무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요?

-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은 업무
- ② 중요도가 낮은 업무
- ③ 중요한 업무
- ④ 매우 중요한 업무
- ⑤ 모르겠음

Q10. 귀하의 단체에서 생산하는 기록물을 관리하는 업무가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시나요?

- ① 단체의 정체성 및 공동체 의식 제고
- ② 역사 및 성과 정리
- ③ 단체 및 활동 홍보
- ④ 내부 업무 및 교육 활용
- ⑤ 기대효과 없음
- ⑥ 기타

Q11. 현재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거나 향후 수행 시 예상되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 ① 조직 및 인력 부족
- ②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준 부재 전문성 부족
- ③ 업무 수행을 위한 재정 부족
- ④ 기록물 보존 공간 부재
- ⑤ 기록물의 손·망실
- ⑥ 기타

Q12. 위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복수 응답가능 2개)

- ① 업무 수행을 위한 재정 지원
- ② 기록의 체계적인 관리 프로세스 마련과 실행을 위한 전문 인력 마련
- ② 기록관리 업무 및 중요성 제고를 위한 교육
- ③ 참여 유도과 활용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 ④ 적절한 장소와 기자재 마련
- ⑤ 기타

## 〈부록 2〉 인터뷰 질의서<sup>11)</sup>

Q1. 단체의 주요 활동 및 업무는 무엇인가요?

Q2. 단체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을 관리하는 주체(조직 및 담당자)가 있나요?

Q3. 단체의 기록관리 업무를 위한 체계가 있으신가요?

예) 소장기록물 목록, 분류체계, 메타데이터 등  
예) 절차 : 등록 → 분류 → 정리 → 보존 → 활용  
예) 전자기록 : 전자적 관리체계 및 시스템 여부, 서비스  
예) 비전자기록물 : 보존시설 및 디지털화 작업 진행 여부

Q4. 기록관리 업무 진행 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예) 재정 부족, 인프라 부족, 통합목록 부재, 기록의 손·망실, 디지털화 작업, 전자적 관리체계 부재로 인한 실물(오프라인) 이용, 기록물 서비스 부족 등

Q5. 위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업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재정, 인프라 부족 기록관리 기준 수립, 유관기관 소장정보 파악, 기록 보존환경 개선, 디지털화,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 등

Q6. 단체의 업무 및 활동 관련 정보를 획득하는 방식은 무엇이며, 그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예) 자체 조사 및 연구 진행, 유관 단체 및 기관 문의 등

---

11) 인터뷰 질의서는 공통질문 및 기관별 고유질문으로 구성함. 본 부록에는 공통질문만 수록하였음

Q7. 위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나 유관 단체 및 기관과 협력을 진행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Q8. 플랫폼 구축 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능은 무엇인가요?

예) 이용자 간 커뮤니티 기능, 게시물 등록 기능, 기록 검색 및 열람 기능, 기록 연계 기능, 콘텐츠 제작 기능 등

Q9.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업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단체 및 활동 홍보를 위한 캠페인 활동,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인프라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재정 지원, 유관단체와의 연대를 위한 공간 지원 등

Q10. 플랫폼을 통해 공유하거나 제공하고 싶은 자료는 무엇인가요?

예) 단체 역사 및 성과 자료, 업무매뉴얼 및 지침, 단체 및 활동 홍보 자료, 해당 분야 교육 및 연구 자료, 유관 민간단체 관련 자료, 법률처리 관련 자료, 단체 운영 시 예로사항, 기타 등

Q11. 플랫폼에 바라는 점, 의견이 있으신가요?

예) 플랫폼에서 서비스되었으면 하는 기능 및 콘텐츠, 민간단체 및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 유발 방안, 네트워킹 관련된 벤치마킹 대상 등